

논 단

〈SHKLAR 문고〉 설치 배경과 운영

민 세 영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
| II. 기증자 소개 | IV. 〈SHKLAR 문고〉 장서 구성 |
| 1. 기증 배경 | V. 〈SHKLAR 문고〉 해제 및 전시 |
| 2. Gerald Shklar 교수 약전(略傳) | VI. 맺음말 |
| III. 〈SHKLAR 문고〉 설치 | |

I. 머리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2010년 이후 우리 도서관에서는 해외 기증 자료를 다량 수집하였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교수가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5,470책을 기증하였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우리 대학 방문을 계기로 2015년에 중국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 1만여 점을 기증하였다. 이 밖에도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수집한 『이반 4세 삼화 연대기 전집』 34책과 미국 제럴드 슈클라(Gerald Shklar, 이하 ‘슈클라’) 교수 장서 1,793책을 손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슈클라 교수의 개인 장서를 수집하게 된 배경과 기증자 소개, 〈SHKLAR 문고〉의 장서 구성 등 〈SHKLAR 문고〉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증자 소개

1. 기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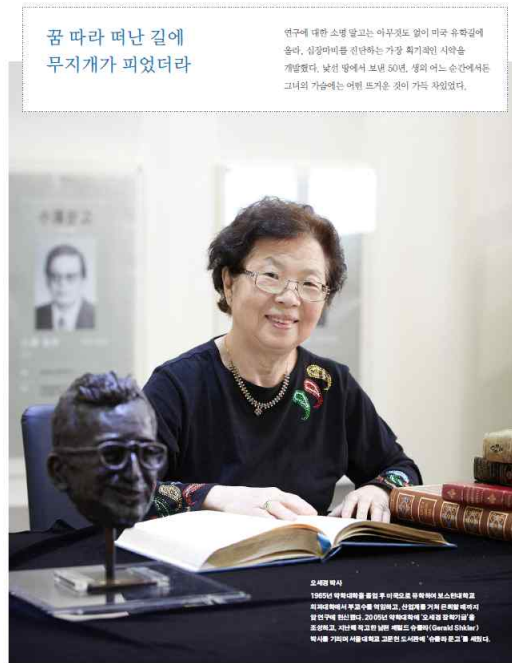
재미 서울대 동문인 오세경(Se-Kyung(Sue) Oh Shklar) 박사는 약학대학 후학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교인 서울대에 ‘오세경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5년부터 발전기금을 꾸준히 출연하여 왔다. 2015년에 작고한 부군 슈클라 교수를 기리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슈클라 개인 장서를 기증하면서부터 <SHKLAR 문고>는 시작되었다.

오세경 박사는 194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1961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1965년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코넬대학 영양학 석사, 조지아대학 생화학전공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보스턴 의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보스턴 암연구회 회장과 MIT 교수를 역임하였다.

오세경 박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으로 모교를 방문하던 중 슈클라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장서를 기증할 뜻을 밝혔다. 자료의 대부분이 과학과 의학 자료로서 처음에는 의학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었으므로 2015년 오세경 박사는 의과대학을 방문(10월 7일)하여 학장과 면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3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방문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을 둘러보고는 최종적으로 중앙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5년 12월 7일 1차분 329책을 기증하였다.

2016년 3월에는 약학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아 7회에 걸친 특강을 하게 되었다. 강의 차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슈클라 장서 기증에 대한 감사장을 받고 <SHKLAR 문고>를 둘러보았다. 도서관에서는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였으나 오세경 박사는 종이로 된 감사장 하나면 충분하다며 특유의 소탈함을 보였다.

또한 오세경 박사는 부군을 기리고자 <SHKLAR 문고>와 흉상이 함께 하길 희망하며 미국에서 제작된 슈클라 교수의 흉상을 보내주었다.



[그림 1] 오세경 박사

**꿈 따라 떠난 길에
무지개가 피었더라**

연구에 대한 소명 말고는 아무 것도 없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 심장마비를 진단하는 가장 획기적인 시약을 개발했다. 낯선 땅에서 보낸 50년, 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그녀의 가슴에는 어떤 뜨거운 것이 가득 차 있었다.

- 『서울대사람들』 2016년 여름호(7월) -



[그림 2] <SHKLAR 문고> 흉상, 감사장 수여(홍성걸 중앙도서관장, 오세경 박사)(2016. 3. 3.)

2. Gerald Shklar 교수 약전(略傳)

슈클라 교수는 1924년 1월 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49년 캐나다의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에서 치의학 박사학위(Doctor of Dental Surgery)를 받은 후 1951년 보스턴 지역으로 이주하여 터프츠대학교(Tufts University) 의과대학에서 구강 병리학(oral pathology)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곳에서 1961년부터 1971년까지 구강 병리학 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 1971년 7월, 하버드 치과대학의 찰스 브래킷 구강 병리학 석좌교수(Charles A. Bracket Professor of Oral Pathology)로 임용되어 2000년 퇴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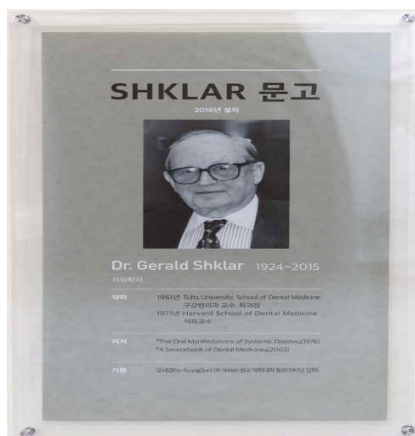
슈클라 교수는 구강암(oral cancer)을 비롯한 구강 질병의 진단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자 관련 분야에 중요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해온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구강 질병이 인체의 다른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2003년 미국치의학사협회(Americ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는 “슈클라 교수가 치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커다란 공로를 인정하여” 학회의 가장 권위 있는 ‘헤이든-해리스 상(Hayden-Harris Award)’을 슈클라 교수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그는 2015년 1월 미국 치의학회(American College of Dentists)로부터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학회의 총무인 제니스 콘래드(Janice Conrad) 박사는 슈클라 교수가 치과 학계를 발전시킨 저명한 학자 중의 한 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50년간의 교수생활을 통하여 335편의 논문과 4권의 치과 교과서, 그리고 3권의 치과 역사학을 발간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논문을 집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운동하기를 매우 싫어하여 한번 앉았다하면 6~8시간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슈클라 교수가 하버드대로부터 초빙을 받았을 때의 요구 조건이 첫째는 테뉴어(tenure, 종신재직)를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실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치대 학장은 테뉴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주차장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심하던 끝에 결국 요구 조건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슈클라 교수는 플루트 연주자로서, 그의 동료이자 노벨상을 받은 데이비드 허블(David H. Hubel) 박사, 그리고 T세포(T cell)를 발견한 아놀드 라이프(Arnold E. Rief) 박사와 앙상블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에서도 연주한 음악가이기도 하였다.

음악과 인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슈클라 교수를 기리고자 오세경 박사는 ‘제럴드 슈클라 상(Gerald Shklar Award)’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음악과 예술, 문학과 봉사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인문학적 분야에 큰 조예와 관심을 가진 치과 대학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2017년 1월 22일 슈클라 교수의 타계 2주기를 맞이하여 오세경 박사는 슈클라 교수를 일컬어 유태인으로서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하며, “그는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이자 교육자이며 절친한 친구”였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슈클라 교수가 가졌던 다방면의 취미와 자질, 그리고 온후한 성격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3] <SHKLAR 문고> 안내 명판

III. <SHKLAR 문고> 설치

<SHKLAR 문고>의 1차 기증 자료는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2 vols.)을 비롯하여 『벤저민 프랭클린 전집』(The Works of Benjamin Franklin, 3 vols.), 1800년대 영국 시드넘 학회(New Sydenham Society) 자료와 1700~1800년대 생명과학 및 의학 자료가 다수이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과학교실 황상익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황상익 교수는 기증 자료가 1500년대부터 1900년대 까지 서양에서 발간된 의학, 치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서적으로, 의학사 및 과학사적으로 가치가 높고 국내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판본으로 희귀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등 고대의 의학자들부터 근대의 저명한 의학자, 과학자들의 저작물들로 사료적 및 학술적 가치가 높아, 개인문고로 지정하여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향후 관련 학문 분야 교수·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교육 및 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발간 연도가 오래 된 것들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시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황상익 교수의 자문에 따라 슈클라 교수 기증 자료는 <SHKLAR 문고>로 지정되었고, 이후 2016년 8월과 12월에 추가 기증을 받아 총 3차에 걸쳐 1,793책을 입수하였다. <SHKLAR 문고>는 우리 도서관의 12개의 개인문고 중 외국인 교수로는 일본 오자와 유사쿠(小澤有作) 교수의 <小澤문고> 다음으로 두 번째이다.

[표 1] 슈클라 교수 기증도서 현황

구 분	기증일자	기증 책 수	주 제	운송방법
1차분	2015. 12. 7.	329	자연과학, 의학	항 공
2차분	2016. 8. 18.	417	인문, 예술	해 상
3차분	2016. 11. 15.	1,047	미술, 건축, 악보	해 상
합 계		1,793		

슈클라 교수 1차 기증 자료 중에는 자연과학 및 의학 분야의 상당한 고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세경 박사는 일부 자료는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기증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그 곳은 세계적인 의학 원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 학생들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기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SHKLAR 문고〉에는 과학 일반, 그리고 나아가 유럽 지성사 일반에 대한 중요한 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의사로서 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그리고 윤리적 함의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슈클라 교수의 학문적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SHKLAR 문고〉가 포함하고 있는 유럽 지성사의 주요 저서들은 인문학과 문학, 예술 등을 중시했던 슈클라 교수의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IV. 〈SHKLAR 문고〉 장서 구성

슈클라 교수 기증 자료 중에는 1500년대를 비롯하여 1600년대, 1700년대 고도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고 이용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별칭기호 ‘SHKLAR’ 를 부여하여 별도 보존함으로써 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였고, 분류는 DDC를 적용하였다. 자료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등록번호 키퍼와 도난방지테이프(Tattle Tape) 및 RFID 태그, 기증 스티커는 부착하지 않았다. 또한 책의 보존 상태에 따라 레이블(Label) 키퍼를 생략하여 장비 작업을 최소화하였다. 3차 기증 자료는 2017년 1월 현재 등록·정리 중에 있으며, 1차분과 2차분에 대한 기증 자료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3차분은 미술, 건축 화집이 다수를 차지하며 100여 점의 악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라별·시대별로 세계 여러 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한 자료들로서 회화, 조각, 태피스트리, 아이콘(icon) 등 귀한 자료가 많다.

[표 2] 〈SHKLAR 문고〉 DDC 주제별 현황

(단위 : 책)

구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합계
1차분	0	11	0	2	0	75	232	0	2	7	329
2차분	0	14	3	12	0	2	13	115	220	38	417
합계	0	25	3	14	0	77	245	115	222	45	746

[표 3] <SHKLAR 문고> 언어별 현황

(단위 : 책)

구분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기타	합계
1차분	226	60	31	11	1	0	329
2차분	373	14	2	27	0	1	417
합계	599	74	33	38	1	1	746

[표 4] <SHKLAR 문고> 발행년도별 현황

(단위 : 책)

구분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no date	합계
1차분	3	9	61	208	48	0	329
2차분	1	0	12	146	249	9	417
합계	4	9	73	354	297	9	746

V. <SHKLAR 문고> 해제 및 전시

고문헌자료실에서는 2016년 9월 ‘슈클라 교수 기증도서 해제 집필(자연과학 분야)’ 사업으로 과학사 및 과학철학을 전공한 해제 집필팀을 구성하여 해제를 추진하였다. 추진 배경은 「중앙도서관 70주년 기념 전시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SHKLAR 문고>의 장서 가치를 분석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해제 내용을 보면 <SHKLAR 문고>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료별로 161건을 해제하여 의학사 분야의 학술 연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하였다.

[표 5] <SHKLAR 문고> 해제 집필팀

구 분	이 름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전 공
감수자	임종태	서울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	과학사
집필자	이두갑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부교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	과학사, 역사학
	박지영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대학원생	박사과정	과학사
	정세권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박사	과학사

「중앙도서관 70주년 기념 전시회」로 열렸던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 전시 중의 한 섹션인 ‘세계를 품다’ 전에서 슈클라 교수 기념문고를 전시하였다. ‘세계를 품다’ 섹션에서 선보인 전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는 도서관이 세상과 오랜 시간을 호흡해온 역사의 증거로서 중앙도서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조망하기 위한 취지였다. 전시 제목은 ‘서양의 의학과 과학 고서전’으로 슈클라 저서 『Oral cancer』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도서를 전시하였다.

의학 관련 자료

1. 『히포크라테스의 현존 논문집』(Hippocratis Coi medicorum omnium facillè principis opera quæ extant omnia)
2.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De humani corporis fabrica libri septem)
3. 이탈리아 : 『의학기준』(Ars De Statica Medicina)
4. 『약전(藥典) : 런던 약전 주해서』(A physical directory; or, A translation of the London dispensatory)

과학 일반 자료

1. 『뷔퐁 전집』(Oeuvres complètes de Buffon)
2.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치의학 관련 자료

1. 치아의 해부학, 생리학 및 질병들(The Anatomy, Physiology, and Diseases of the Teeth)

2. 인체 치아의 자연사 : 그 구조와 이용, 형성과 성장 그리고 질병
 (The Natural History of the Human Teeth: Explaining Their Structure, Use, Formation, Growth and Diseases)

□ 지성사 일반 자료

1. 『장 자크 루소 전집』 (The works of J. J. Rousseau)
2. 『고(故) 벤자민 프랭클린 박사의 철학, 정치, 도덕에 관한 글 전집』
 (The complete works in philosophy, politics and morals of the late Dr. Benjamin Franklin)



[그림 4]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 <SHKLAR 문고> 전시 1



[그림 5] 「도서관 70년! 세계를 품다」 <SHKLAR 문고> 전시 2

VI.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슈클라 교수는 미국의 저명한 치의학자로서,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및 치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슈클라 교수 사후, 오세경 박사는 슈클라 교수의 애장서인 1500년대 고도서를 비롯한 과학·의학 분야 도서를 기증하여 <SHKLAR 문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오세경 박사는 2016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인문, 미술, 건축 분야의 자료를 추가로 기증하였다. <SHKLAR 문고>는 중앙도서관 본관 4층 고문헌자료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문헌자료실에서는 이들 장서에 대한 해제작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중앙도서관 70주년 기념 전시회」의 하나로써 전시를 하였다.

돌이켜 보면 <SHKLAR 문고>의 장서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서가에 배열하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이 뒤따랐다. 그런 만큼 개인문고로서의 자리 매김도 중요하지만, 이들 귀중한 자료의 존재를 알리고, 자료의 가치를 분석·평가하여 학술연구 자료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 사서의 몫이다.

참고문헌

1. 꿈 따라 떠난 길에 무지개가 피었더라. (2016). 『서울대 사람들』, 2016년 여름호 (7월) 45호, pp.50-51.
<http://www.snu.ac.kr/SNUmedia/people?peopleidx=288&page=4>
2. 모교에 의학 도서 300여권 기증, 오세경 박사. (2016. 3. 3.). Focus news.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0300093835525>
3. 서울대 개교 70주년 기념 전시회 문고 소개. (2017. 1. 3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rary.snu.ac.kr/find/collections/70years/shklar_intro
4. 오세경 박사(Gerald Shklar 도서 기증자) 방문. (2016. 3. 11.). SNU NOW, 100호.
<http://news.snu.ac.kr/>
5. 오세경 박사, 의학·과학사 고도서 300여권 서울대 기증. (2016. 3. 2.). News1 Korea.
<http://www.news1.kr/articles/?2590485>